

연구논문

‘불완전한 관용’: 한국 옴니보어의 시민성과 탈물질주의*

조아현**

이 연구는 옴니보어성으로 측정되는 한국인의 문화 소비 패턴이 사회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연계되는지 조사한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옴니보어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민성과 탈물질주의 가치 지향에 결부된다. 구체적으로, 옴니보어는 다른 개인들보다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고, 자원봉사활동과 시민참여활동에 더 적극적이며, 이주 노동자에게 호의적이다. 또한 이들은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원하며 환경 의식이 높다는 점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과 성 소수자에 대해서 유의하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의 옴니보어 집단은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집단도 아니다. 한국 옴니보어의 정치적 관용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들에는 옴니보어 내부에서의 정치적 성향 및 종교의 분화, 민족주의 및 집단주의와 혼합된 코즈모폴리타니즘, 그리고 성 소수자를 배제하는 가부장적 사회 규범이 포함된다. 이 연구는 개인의 문화적 선택이 단순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산물이 아니라, 개인에게 내면화된 광범위한 가치체계를 재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문화적 레퍼토리와 사회 정치적 태도 사이의 연관성들은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주제어: 옴니보어, 문화 소비, 시민성, 탈물질주의

* 본 연구의 초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choahere@gmail.com).

I. 도입

최근 옴니보어에 대한 논의는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국내에서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현대 사회의 문화적 계층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들의 원천이 주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작업(Bourdieu 1984)에서 비롯된 반면, 부르디외가 강조한 계급구조와 취향의 강력한 대응관계는 그의 경험적 관찰의 무대인 1960년대 프랑스가 아닌 여러 국가와 사회를 배경으로 검증되는 과정을 거치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관찰된 엘리트 계층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화적 레퍼토리를 지칭하는 옴니보어성의 개념이 있는데,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것은 부르디외의 이론을 미국 사회의 맥락에 맞게 신중하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리처드 피터슨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들(Peterson 1992; Peterson & Kern 1996; Peterson & Simkus 1992)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다. 1990년대에 부르디외의 논의가 수입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구별짓기가 실재하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윤인진·김상운 2005; 장미혜 2001; 조돈문 2005; 최섯별·이명진 2012). 이어서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국내의 문화적 계층화 양상을 모색하는 작업도 진행되어 왔다(김두이·김상훈 2019; 김은미·서새롬 2011; 남은영·최유정 2008; 박근영 2014; 배영 2013; 이상수·이명진 2014; 장세길 2016; 전범수·이상길 2004; 조아현 2023).

옴니보어성이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행동, 가치관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내를 포함해 동아시아와 비서구권에서 아직 조사된 바가 거의 없다. 부분적으로 이는 전통적인 문화적 계층화 논의에서는 옴니보어성을 포함하는 문화적 패턴이 개인의 계급 내지 계층적 위치에서 부여받은 각종 자본의 양과 구성에서 초래된 산물로 이해하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의 취향은 그의 사회적 위치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내의 논의들도 대부분 문화적 패턴이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유의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문화적 취향과 소비의 패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검증해 왔다. 예를 들어 디마지오(DiMaggio 1996)는 미술관 방문이라는 문화 참여를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정치적 태도에 연결시킴으로써 문화적 취향과 소비의 레퍼토리를 개인의 광범위한 가치체계의 한 구성요소로 보는 독

창적 관점을 제시했으며, 후속 연구들 또한 주로 미국과 유럽 사회를 배경으로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Chan 2019; Lindblom 2022; Lizardo 2005; Okada 2017; Purhonen & Heikkilä 2016; Rogers & Jost 2022; Skjøtt-Larsen 2012; Van Eijck & Lievens 2008). 이 연구들은 ‘옴니보어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의 사회 경제적 위치가 아닌 다양한 사회/정치적 태도, 가치관, 행동 패턴으로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옴니보어성을 개인의 사회 정체성, 가치 지향, 또는 세계관의 한 구성요소이자 지표로 해석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들은 취향의 사회학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배경이 구미 사회를 위주로 한정되어 온 점은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한국의 옴니보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가치 및 행동상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문화를 하나의 가치 지향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논의에 경험적 증거를 추가하고자 한다. 이는 옴니보어성을 현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문화자본, 또는 계급 기반 질서의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해 온 국내의 연구 흐름을 환기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행동의 패턴이 계급 또는 계층의 결과변수가 아닌, 또 다른 개인의 일반적 행동 및 태도의 독립변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옴니보어성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옴니보어들이 표명하는 시민성과 탈물질주의 가치의 양상을 기술한다. 이를 통해 해외의 선행연구들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어온 문화적 취향과 사회정치적 태도의 친화성이 한국 사회에서도 통용되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 사회의 옴니보어의 가치 지향과 행동의 패턴은 서구 사회에서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가치 지향으로서의 취향

부르디외(Bourdieu 1984)는 프랑스 사회에서 계급이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생활 양식의 패턴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의 이론적 분석

들을 빠르게 미국 사회에 적용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비판은, 부르디외가 문화적 패턴에 대한 계급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는 것이다(DiMaggio & Mohr 1985; Erickson 1996; Lamont 1992; Peterson 1992). 취향과 소비의 패턴을 구성하는 요인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후속연구들은 첫째로 문화적 스놉이 아닌 옴니보어가 가장 지배적인 문화적 표명의 방식으로 확립되고 있다는 것(Karademir Hazır & Warde 2015), 둘째로 개인의 문화적 레퍼토리는 계급 외에도 지위(Alderson et al. 2007), 연령(Meuleman & Savage 2013), 성별(Lagaert & Roose 2018), 인종 또는 민족성(Patterson 2020), 거주지역(Cutts & Widdop 2017)과 같은 기타 요인들을 통해 훨씬 복합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의 문화적 패턴에 대한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작업이 다양한 국가사회적 맥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온 것에 비하면, 그러한 문화적 패턴이 개인의 행동 및 가치관과 같은 결과들에 대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부르디외의 이론을 반박해온 학자들이 일찍부터 문화를 사회 정체성과 집단 갈등에서 핵심적인 경계짓기의 도구로 이해해 온 것에 비추어 본다면(Bryson 1997; Lamont & Molnar 2002), 취향 또는 소비의 일정한 패턴은 개인의 광범위한 가치체계에 연동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질문을 가장 직접적으로 던진 초기 연구는, 미국의 1993년 일반사회조사(GSS) 데이터를 분석한 디마지오에 의해 제출되었다(DiMaggio 1996). 그의 아이디어를 참조하는 이후의 여러 선행연구 중 한 사례와 그의 연구가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미술관 방문객은 비-방문객보다 약간 더 세속적이고, 사람들을 더 잘 믿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다양한 인종에 관용적이고,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에 더 개방적이며, 고급문화에 훨씬 관용적이고 관심이 많다. [...] 미술관 방문객은 비-방문객보다 다문화주의와 대중문화를 향한 태도 면에서 약간 더 코즈모폴리탄적이다.” (DiMaggio 1996: 161; 173)

“옴니보어는 더 사람들을 잘 믿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초국적 유럽연합을 더 지지하며, 민족국가 단위의 정체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옴니보어가 더 개방적이고 코즈모폴리탄적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옴니보어는 성역할 태도와 동성애에 관해 더 개방적이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더 녹색친화적이다. 전반적으로 옴니보어는 탈물질주의 문제에 대해 더 진보적이다.” (Chan 2019: 800-801)

뿐만 아니라, 디마지오가 분석한 자료에서 미술관 방문 대신 음악적 취향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또 다른 선행연구(Okada 2017)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옴니보어적 취향을 지닌 개인들은 타인에 대하여 가장 느슨한 상징적 경계를 그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타인의 취향을 배척할 가능성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덜 분열되어 있고, 더욱 단합되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개인에게 내면화된 문화적 취향과 참여의 포트폴리오를 사회적 위계구조 내 위치에서 비롯되는 각종 자본의 양과 구성의 결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의 가치와 행동의 패턴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각종 제도와 환경의 영향하에서 재구성되는 광범위한 의미 체계를 따른다. 취향과 생활양식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즉 일반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선택하고 구성하는 취향과 생활양식의 레퍼토리는 개인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 스페인에서 옴니보어적 문화 소비와 취향의 패턴은 ‘세계 문화(world culture)’(Boli & Thomas 1997) 또는 세계 시민성 의식(sense of world citizenship)과 유의하게 연계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Lizardo 2005). 즉 싫어하는 문화적 장르가 적고, 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한 개인은 스스로의 시민 정체성의 기반을 거주지역이나 스페인이 아닌, 세계 전체로 의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벨기에의 옴니보어들은 다른 음악적 취향을 가진 개인들보다 사회 통합과 연대를 지지하는 가치관을 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Eijck & Lievens 2008). 덴마크와 핀란드에서 가장 많은 문화자본을 지닌 개인들은 고급문화, 이국적 요리,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는 식단을 선호하는 동시에, 진보적이고 이주민에게 관용적인 정치적 및 도덕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Skjøtt-Larsen 2012; Purhonen & Heikkilä 2016). 호주의 사례에서도 문화 소비 영역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은 코즈모폴리탄적 세계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가치관임이 입증되었다(Woodward et al. 2008).

종합하면 문화적 옴니보어성은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지지하는 현대 사회의 규범을 이루는 가치관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 옴니보어성은 특정한 가치 또는 세계관과 하나로 묶이기 쉬운 사회적 특성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그 특정한 세계관에는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 코즈모폴리타니즘, 진보주의, 다문화주의, 친사회적인 성향, 탈물질주의 가치가 포함된다. 이러한 가치들은 민족주의, 보수주의, 물질주의 가치와는 대조된다. 요약하면 코즈모폴리타니즘, 다양성에 대한 관용, 개방성, 진보적 성향은 옴니보어들의 특수한 사회적 프로파일(social profile)을 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처럼 문화예술적 취향과 사회 정체성

간의 연결고리가 나타나고 있을까? 서구 사회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과 가치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옴니보어들이 표명하는 사회정치적 태도는 다를 수 있다.

2. 문화적 관용의 사회적 의미: 시민성과 탈물질주의 가치

문화적 개방성과 사회정치적 태도의 체계적 연관성은 왜, 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능한 한 가지 답변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구별짓기는 집단간 갈등과 정치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배제와 포섭의 원칙을 가진다는 것이다. 문화적 개방성과 정치적 관용 간의 친화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브라이슨(Bryson 1996)은 음악적 취향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 관용을 갖춘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의 취향을 혐오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편협한 태도를 지닌 개인일수록 다양한 문화적 장르를 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진보적인 성향의 개인이 문화적으로 옴니보어적이며, 이 연관성은 개인의 심리적 개방성(openness)에 의해 매개된다(Rogers & Jost 2022). 실제로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의 관용은 서로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며, 문화자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일부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가장 폭넓은 문화적 및 정치적 관용을 발견할 수 있다(Harrits et al. 2009). 옴니보어와 코즈모폴리턴은 상대적으로 엄격하거나 배타적인 상징적 경계를 통해 자신을 타인과 분리하는 데 소극적이며, 타인의 취향이나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기피한다.

관용은 정치와 문화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치 지향이자 도덕적 신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성향은 가깝게는 신뢰, 투표와 시위를 비롯한 정치 참여,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 더 광범위하게는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문화적 개방성이 어떠한 사회정치적 태도의 조합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질문의 기저에 놓인 핵심은 결국, 문화적 대상물에 대한 취향에 내포된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 사회정치적 차원의 관용, 타자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평등주의를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상층계급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그들의 속물적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끔 할 수는 있지만, 내면에서의 우월감마저 느끼지도 추구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Jarness & Friedman 2017). 문화적 옴니보어성 그 자체도 반드시 평등주의적이고 무조건적인 차원의 관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de Vries & Reeves 2021). 개인의 옴니보어적 레퍼토리가 현대 사회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 신뢰, 더 건강한 시민 사회를 구성하고 집단적 차원의 사회 자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개인의 가치관 및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규명할 수 있다면, 문화적 옴니보어성이 비단 개인의 자율적이고 사적인 취향의 영역에 국한되는 특성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 사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프로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문화적 취향에 있어서의 개방성이 집단 및 사회적 의미에서도 관용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사회자본(Putnam 2007)과 관련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옴니보어의 사회적 특성으로서 시민성(citizenship)과 탈물질주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시민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시민성을 구성하는 측면은 보다 복합적인 것이며, 역사적으로 시민성의 다양한 정의는 크게 네 가지 원리, 즉 공적 참여, 자율성, 사회 질서의 준수 및 국가 권위의 인정, 같은 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도덕적 및 윤리적 책임에 의해 구성되어 왔다(Dalton 2008). 시민성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정치문화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의 측면을 포함한다.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 투표를 포함하는 다양한 정치 참여, 더 취약한 사회 구성원과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부활동과 같은 시민 행동과 태도가 그러한 시민성의 범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LeRoux & Bernadska 2014).

세계화와 이민으로 인해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의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관용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난민과 이주민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온 북미와 유럽 사회에서는 자국민이 문화나 종교적 차원에서 그들과 다른 외국인을 얼마나 그들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주민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그들이 자국민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간다는 경제적 위협보다는, 그들이 자국민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온 가치와 신념을 흔들 수 있다는 문화적 위협에서 비롯된다(Hainmueller & Hiscox 2007; Hainmueller & Hopkins 2014). 유럽에서는 자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상징적 경계가 인종, 종교, 언어, 생활양식, 교육수준, 직업의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구성되고(Bail 2008), 미국의 경우에는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두고 다양한 태도 및 가치를 형성하는 데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Edgell & Tranby 2010). 교육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이주민에 대한 보다 관대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으며(Hainmueller & Hiscox 2007),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은 개인들은 문화적 취향과 그에 내포된 집단 정체성을 기준으로 혐오와 적대감을 더 쉽게 표출한다(Bryson 1997).

한국인들의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김희정 2017; 원숙연 2019; 조동기 2010)에 의하면, 한국인들에게는 종족, 혈통, 피부색과 더불어 출신국가의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상징적 경계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적으로 구성되는 시민성 개념을 토대로 한 국민정체성(조동기 2010; Chang 2019), 높은 교육수준(이명진·최선헌·최유정 2010)은 한국인들의 이주민 또는 외국인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최근 연구는 서울 시민에게서 나타나는 옴니보어성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간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고하였고(Park & Park 2022), 옴니보어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관용적이라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Cho & Kim 2023).

구미 사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 사회는 오래도록 단일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 문화를 유지해 왔으며, 구미 사회와 다르게 대규모로 이주민 또는 난민을 수용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이명진 2021). 2018년 제주도에 도착한 예멘 난민에 대해서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걸맞지 않는 과격한 혐오 정서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던 사건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 중 하나다(Kim 2023 참조). 게다가 많은 시민들이 제주도의 예멘 출신 난민들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난민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느꼈다는 점은 유념할 만한 대목이다(Kim 2021).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이직 기회와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를 오래 유지해 왔다. 한국인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서 온정주의적, 시혜적 태도를 보여줄 수는 있어도, 실제로 외국인을 사회에 정착해 내국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같은 시민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족주의적, 집단주의적 문화가 한국인의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이해되기도 어렵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적 정체성은 같은 민족 구성원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타주의적 태도를 강화하며,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과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시민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개념화되지만, 한국인의 세계 시민성에 대한 이해는 북미와 서유럽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다르게 민족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문화로부터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Schattle 2015), 한국의 세계 시민 관련 담론은 민족국가를 토대로 하는 정서로부터 초월하여 인류와 국제

공동체로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한국인에게 민족적 정체성은 경우에 따라 외국인을 포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처럼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행연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민족문화적 이해가 이민정책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Chang 2019). 즉 한국인의 언어, 풍습, 조상, 출생국가와 지역과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는 공고한 민족적 정체성이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지향과 대조되는 집단주의적 지향이 강할수록, 한국인의 타인에 대한 신뢰의 반경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Lim, Im, & Lee 2021). 이 신뢰의 반경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타인의 범위를 말한다(Delhey, Newton, & Welzel 2011).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급속히 붕괴된 한편, 그 자리를 온전한 개인주의가 대체한 것은 아니다(Chang 2014). 만일 한국의 옴니보어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서구의 옴니보어와 다른 관용의 패턴을 보인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시민성에 대한 가설 5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옴니보어의 시민성 관련 가설:

가설 1-a. 옴니보어는 다른 개인들보다 높은 사회 신뢰를 보일 것이다.

가설 1-b. 옴니보어는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가설 1-c. 옴니보어는 더 다양한 시민참여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가설 1-d. 옴니보어는 이주민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설 1-e. 옴니보어는 난민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옴니보어는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며,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Chan 2019; Lindblom 2022).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에 대한 권리와 평등에 대한 관심과 옹호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구성요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로널드 잉글하트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산업사회들의 정치문화가 변화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출생한 코호트 간에 나타난 이러한 가치변화가 그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누린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Inglehart 2008). 그에 의하면 전쟁 이전 출생

한 코호트는 사회화 과정에서 신체적 안전과 생존, 물질적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물질주의적 가치를 체화하게 되는 반면, 전쟁 이후 출생한 코호트는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한 물질적 번영을 토대로 그러한 물질주의적 가치에서 탈피하여 반차별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이상을 가지며 자기표현, 개인주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이들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발전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교육수준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직업의 전문화와 상호작용의 다양화를 통해 사회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인간의 자율성 및 창조성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해방적 효과’(emancipative effects)를 가지며(Inglehart & Welzel 2005: 25), 대체로 사람들을 더 세속적이고, 관용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잘 신뢰하게 만들고, 자기표현, 참여, 그리고 삶의 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Inglehart & Welzel 2005: 46). 또한 탈물질주의적 가치는 환경의식, 여성 및 성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지지, 시위와 보이콧 같은 비관습적(unconventional) 정치 참여와도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Inglehart & Welzel 2005: 116).

한국 사회에서 탈물질주의 가치 지향의 확산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관찰된다. 이 시기는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중산층 구성원들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의 시민단체들이 신설되었으며, 탈물질주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었다(강수택·박재홍 2011). 그러나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탈물질주의 가치가 확산된 것은 아니다. 뒤이은 2000년대 전후 시기는 '97년 외환위기의 영향과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강화, 그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물질주의로부터 탈물질주의로의 가치 전환보다는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 가치를 혼합적으로 지지하는 중도층의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다(강수택·박재홍 2011; 박재홍·강수택 2012).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이 상당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되고 있기도 하다(양해만·조영호 2018; 정태석 2009).

한국 사회에서 보수진보의 대립이 서구의 정치적 이념갈등과는 다르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 정치를 양분하는 중요한 축은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 대 수용과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이며, 이에 비해 좌우 이념과 물질주의 대 탈물질주의는 제한적 영향력을 가진다(강원택 2005). 이는 한국 사회의 옴니보어가 스스로의 정치적 이념을 다소 모순적이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정제화하고 있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인정과 차별금지권 인권 문제의 필수 요소인 반면, 이성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정상 가족과 젠더 역할을 해체하는 존재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신정희 2017).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옴니보어성과 탈물질주의 가치의 연관성은 서구 사회에서 확인된 것보다 더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보다 그 연관성이 높거나 낮은지는 경험적으로 판별되어야 하는 문제로 사료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음의 4가지 기본 가설을 수립하였다.

옴니보어의 탈물질주의 가치 관련 가설:

가설 2-a. 옴니보어는 다른 개인들보다 환경의식이 높을 것이다.

가설 2-b. 옴니보어는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다.

가설 2-c. 옴니보어는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 2-d. 옴니보어는 성 소수자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III. 자료 및 방법론

1. 자료와 변수 정의

<서울도시정책지표조사>(이하 ‘서울서베이’)의 2018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이전의 전반적인 사회 동향을 볼 때 2018년은 다른 해에 비해 정치적 진보 성향이 유독 강화되고, 정치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김지범 2022). 2018년은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들을 두고 추방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6월부터 7월까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서울서베이 2018년 자료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20,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 구성원 42,991명의 응답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2018년 9월 1일부터 30일, 가구 방문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서울특별시 2019). 서울서베이의 설문지 구성은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특히 2018년

자료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포함하는 여러 사회 집단에 대한 호감도, 사회적 차별 또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 외국인에 대한 태도, 다문화사회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정치적 성향 및 정치사회 참여 등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정치적 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응답자의 사회정치적 태도에 대한 종속변수를 크게 시민성과 탈물질주의 가치로 구성하였다. 각 하위주제별로 세부항목은 각각 5가지, 4가지다. 시민성의 경우 (1) 사회 신뢰는 응답자가 자신의 가족, 친구, 이웃 각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들의 평균이다. (2)자원봉사활동은 응답자가 지난 1년간 한 번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활동(환경보전 및 보호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 분야, 재능나눔 및 문화예술분야, 재난재해 및 응급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분야, 해외자원봉사, 기타)의 종류를 합산한 것이다. (3)시민 참여는 응답자가 민원 제기, 정책 제안, 집회 또는 시위 참가 등 비전통적 정치참여 활동과 전통적 정치참여 활동인 투표를 포함해 총 6가지 종류의 사회참여 활동 중 지난 1년간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활동의 수이다. (4)이주노동자, (5)난민 집단에 대한 호오도를 나타내는 각 지표는 응답자가 각 집단에 대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5점 척도로 측정한다(1점은 매우 싫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매우 좋다).

탈물질주의 가치에 관한 세부 종속변수로는 (6)환경보호에 대한 의식, (7)성역할 태도, (8)정치적 성향, (9)성 소수자에 대한 호오도를 사용하였다.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은 응답자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성역할 태도 변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로 동의하는지 표시한 5점 척도이다.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성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감정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으로, 앞의 이주 노동자 집단에 대한 측정 방식과 같다. 정치적 성향은 응답자가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적 또는 진보적으로 평가한 점수이며, 원 자료의 11점 척도를 점수가 높아질수록 매우 진보적인 성향을,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중간값인 6점은 중도 성향을 나타내도록 재부호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9개 변수의 표준화점수(Z)를 사용했다. 분석의 중심인 두 개의 주제와 이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이론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다. 비록 분석 및 해석상의 편의를 위하여 순서화 및 유목화하였지만, 이 9개의 변수들은 공통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 문화예술 분야를 벗어난 더 광범위한 개인의 가치관 및 행동의 변이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개인의 문화적 레퍼토리이다. 원 자료에서는 응답자에게 문화예술 활동 또는 소비 8가지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참여한 횟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 8가지 활동은 ①미술관 관람, ②박물관 관람, ③클래식음악/오페라/무용 관람, ④전통음악/예술 관람, ⑤연극/뮤지컬 관람, ⑥대중공연 관람, ⑦극장에서 영화 관람, ⑧스포츠경기 관람이다. 이 활동들의 연간 참여 횟수를 가지고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수행하여 총 세 개의 잠재요인을 얻었다. 첫 번째 요인은 ①미술관, ②박물관 관람, 두 번째 요인은 ③클래식음악/오페라/무용, ④전통음악/예술, ⑥대중공연 관람, 세 번째 요인은 ⑤연극/뮤지컬, ⑦영화, ⑧스포츠경기 관람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결과는 각 요인에 소속되는 활동은 서로 다른 요인에 소속되는 활동들보다 실제 참여 여부와 빈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동질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적 개방성 또는 다양성은 이 세 가지 다른 요인들에 얼마나 폭넓게 관여하는지로 측정될 수 있다(요인분석 결과는 <표 1>을 참조). 한 가지 요인에 속하는 활동에만 참여한 집단을 ‘유니보어(univore)’로, 세 가지 요인에 속하는 활동에 모두 참여한 집단을 ‘옴니보어(omnivore)’로 규정하였고, 이 외에 두 가지 요인에 속하는 활동에 참여한 집단은 옴니보어보다는 온건하고 제한된 정도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유형이라는 뜻에서 ‘중간층(middle)’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 레퍼토리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문화적 비참여자’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했을 때 유니보어, 중간층, 옴니보어를 나타내는 세 개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문화적 레퍼토리와 사회 자본 또는 탈물질주의라는 광범위한 가치체계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통제변수를 활용하였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변수 중 하나는 개인의 학력이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소비의 패턴을 가장 강력하게 형태 짓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Fishman & Lizardo 2013; Lemel & Katz-Gerro 2015; Meuleman & Savage 2013; Warde et al. 2007),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중요한 설명변수이기 때문이다(Bryson 1996; 1997; Inglehart 2008; Chan 2019).

한국의 교육제도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 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오늘날 대학교육은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2022년 기준, 한국 사회에서 15세 이상 인구 전체 대비 대학 졸업자는 약 40%에 육박한다(통계청 2022.12.). 교육 불평등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교육의 확대가 상대적 사회이동의 활성화(Chung & Park 2019)와 노동시장 성

과(김창환·변수용 2021)로 이어진 한편, 대학교육 자체는 질적으로 더욱 차등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최성수·이수빈 2018). 따라서 같은 대학 졸업자 집단이라고 해도 그 구성원들은 상당히 이질적이며 사회경제적 배경 면에서 계층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 문화적 레퍼토리의 요인 구조

변수명	요인 적재값			공통성
	1	2	3	
2) 박물관 관람	0.783			0.613
1) 미술관, 전시회 관람	0.764			0.605
6) 극장에서 영화 관람		0.638		0.498
8) 스포츠경기 관람		0.609		0.393
5) 연극/뮤지컬 관람		0.556		0.358
4) 전통음악/예술 공연 관람			0.772	0.652
3) 클래식/오페라/발레 공연 관람			0.504	0.331
7) 대중공연 관람			0.449	0.339
% of total variance	17.428	16.236	13.709	
Eigenvector	1.673	1.095	1.022	
Cronbach's Alpha	0.487	0.242	0.125	

주) KMO=.621, $\chi^2=12201.503$, $df=28$, Bartlett=.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분석 자료에는 응답자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개별 대학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료상으로 응답자들이 이수한 대학교육의 질적 차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생의 가정 배경과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진학 선택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직업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가정 배경이 취약할수록 4년제 대학이 아닌 전문대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입증한 선행연구(Byun & Park 2017)를 근거로, 학력 집단을 4년제 대졸 이상(즉 4년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과 전문대졸 이하(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로 나누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연령 또는 세대(6점 척도, 10대부터 60대 이상), 성별(남성=0, 여성=1), 결혼 여부(미혼, 이혼 등=0, 기혼=1), 서울 거주기간(월 단위의 표준화점수), 출생지역(기타=0, 서울=1)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하였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련된 변수로는 직업 및 고용상태와 주관적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였다. 직업은 응답자의 직업에 대한 원 자료를 관리/전문직과 이외의 비(非)관리전문직(사무, 판매, 서비스, 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 등), 기타(학생, 주부, 무직)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뒤, 기타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만들어 사용했다. 고용상태는 정규직을 1, 나머지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이다. 주관적 사회적 지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 응답자가 스스로를 평가한 지위를 측정하며 최하층을 1, 최상층을 10으로 하는 값이다.

추가적으로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 및 환경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불평등과 차별의 수준 그리고 그로 인한 위협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적대감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차별 또는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변수는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공평 과세, 성평등으로 총 다섯 개의 분야에서 응답자가 생각하는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의 평균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만족 또는 행복의 수준이 낮거나, 사회연결망이 작고 고립된 개인일수록 자신과 다른 타인에게 방어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가질 수 있으므로(Geys & Murdoch 2010; 양계민 2010; Kim 2018) 이 변수들도 통제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건강상태, 친구관계, 가족관계, 사회생활 영역별 주관적 웰빙의 평균값이다. 사회연결망은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경험이 있는 친목회, 동창회, 향우회, 동호회 등 사회단체 또는 모임의 수로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인 4는 응답자가 참여한 사회단체 또는 모임의 수가 4개 또는 그 이상임을 의미한다.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 또한 통제하였다. 종교는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 기타종교, 무교 총 6개 집단을 더미변수로 구분하며, 이중 준거집단은 무교이다.

가구 수준의 특성으로서는 전체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포함 여부(미취학 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말함), 가구주의 자택소유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① 50만 원 미만, ② 50~100만 원 미만, ..., ⑱ 850~900만 원 미만, ⑲ 900만 원 이상)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가구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들(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주의 자택소유 여부)과 가족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전체 가구원 수, 가구 내 자녀 포함 여부)은 한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의 문화 소비 패턴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수준에서는 최근 5년간 지역 내 인구 천명당 외국인 수의 변화(2018년과 2013년의 차이), 그리고 2018년 기준 지역구의 객관적인 경제수준을 보여주는 지역 내총생산(GRDP) 지표,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의 개소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서 지역내총생산 지표와 문화시설 수는 표준화점수로 변환하였다. 지역구 수준의 데이터는 서울서베이가 아닌 별도의 출처에서 수집하였다. 지역구별 천명당 외국인 수, 지역내총생산 지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e-지방지표’에서 추출하였다. 문화시설 중에서 극장 현황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등록공연장 현황>, 미술관과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서 추출하였다. 개인의 여가를 위한 생활반경이 자치구 단위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문화시설 수는 개인의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 단위에서 문화시설 수는 그 지역 거주민 집단의 문화 소비에 대한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개인의 문화적 레퍼토리는 그를 둘러싼 물리적 차원의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거주민의 문화적 취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아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였다. 외국인 수의 변화 정도는 비록 개인이 새로 유입된 외국인과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자체로 이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종적 다양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정치적 관용을 비롯한 가치관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제하였다. 지역 내 총생산 지표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해당 자치구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며,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거나 그렇지 않은 정도는 거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사회정치적 태도 및 행동을 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문화소비 유형별 집단에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의 편향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기술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비참여 집단은 연령대가 평균 50대로 가장 높고, 여성 비율이 가장 적으며, 소득, 지위, 직업, 학력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유니보어, 중간층, 옴니보어 순서대로 연령대가 젊어지고 여성 비율이 높아지며 지위, 연결망 크기, 소득수준, 전문직 종사자 비율, 학력이 높아지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중간층과 옴니보어는 나머지 집단에 비해 가구원 수가 많고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이 더 높다. 각 문화소비유형 집단 내에서 특정 종교의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다. 종교

의 경우 문화 소비 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개신교(24.8%), 불교(9.7%), 천주교(8.9%), 무교(56.4%)로 구성되는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비참여 집단에는 불교 신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유니보어 집단에는 종교가 없는 개인의 비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간층과 옴니보어 집단에는 전체 평균비율 이상으로 개신교 및 천주교 신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옴니보어 집단은 종교가 없는 개인의 비율이 가장 낮고, 종교(개신교/불교/천주교)가 있는 개인의 비율이 고루 높았다. 이는 옴니보어 집단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양한 종교의 대표성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의 옴니보어성은 종교적 성향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것으로 보이는데(Park & Park 2022 참조), 이는 더 세속적인(secular) 개인이 옴니보어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선행 연구(Katz-Gerro, Raz, & Yaish 2009)와는 구분되는 한국 옴니보어의 특징이다.

<표 2> 각 문화소비 유형 집단별 특성

요인	비참여	유니보어	중간층	옴니보어
연령	5.1	3.9	3.6	3.6
사회적 지위	5.9	6.3	6.4	6.6
연결망 크기	1.1	1.3	1.4	1.7
가구원 수	2.5	2.7	2.7	2.8
가구소득	8.3	10.2	10.7	11.8
자녀 유무	0.2	0.3	0.4	0.4
여성(%)	48.0	53.0	59.0	62.3
전문직 종사(%)	4.0	6.2	7.0	10.8
대출 이상(%)	17.9	37.2	44.1	52.9
개신교(%)	24.8	24.2	26.3	27.2
불교(%)	12.4	8.2	9.4	10.8
천주교(%)	8.4	8.6	10.4	11.7
무교(%)	54.2	58.9	53.9	50.1

주) 표의 비율(%) 수치는 각 집단 전체 구성원 대비 비율임.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비참여(n=12,915); 유니보어(n=21,265); 중간층(n=7,798); 옴니보어(n=1,013).

2. 분석 전략

전체 표본 자료를 대상으로 3수준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 수준의 변수와 가구 수준의 변수를 포함한 무선 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HLM 소프트웨어(version 8.2)(Raudenbush & Congdon 2021)로 추정하였다. 이는 분석 대상이 된 자료가 본질적으로 개인, 가구, 지역구 총 세 개의 수준으로 층화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자료상으로 개인들이 그보다 상위 수준에 내재되어(nested) 있을 때, 그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변수들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선형회귀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면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함에 따라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줄게 된다. 다층모형의 장점은 이러한 층화된 자료에 발생하는 비독립성(non-independence)을 연구자들이 조정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변수들을 통해 종속변수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McCoach 2018). 구체적으로, 개인이 층화된 상위 수준의 특성(가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무선 기울기 모형(random slope models)을 사용했다(Hox et al. 2018).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전체평균 중심화(grand mean-centering)하였다(Brincks et al. 2017).

3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개인의 교육수준과 문화적 레퍼토리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학력과 문화소비 유형 간 상호작용항은 전반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종속변수들에 따라서 개인, 가구, 지역 수준의 집단 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는 일정하지 않다. 사회 신뢰를 제외한 나머지 종속변수들에 대한 모형들에서 지역 수준의 ICC는 5% 미만이다. 집단 내 상관계수는 종속변수의 전체 분포에서 각 층위의 효과를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의 특성상 복수의 종속변수들을 토대로 여러 개의 다층모형을 추정하고 있어, 표가 아닌 그래프를 통해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문화소비 유형과 다양한 종속변수의 연관성을 그래프로 요약하는 과정에서 전체 표본을 크게 대졸 이상(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집단과 대졸 미만 집단(초·중·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으로 나눈 2개의 하위 표본을 구성하고, 각 표본에 다층모형을 추정했다(StataCorp 2021).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다층모형에서는 3수준 다층모형에서 사용된 모든 설명변수들을 사용하되 개인과 가구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 특성의 변수를 2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변수들의 기술통계

는 <표 3>~<표 6>과 같다.

<표 3> 기술통계표(종속변수)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신퇴(Z)	-5.11	2.25	0	1
자원봉사활동(Z)	-0.30	7.92	0	1
시민참여(Z)	-1.44	7.27	0	1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Z)	-2.43	2.56	0	1
난민에 대한 태도(Z)	-1.42	3.03	0	1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Z)	-1.15	3.10	0	1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Z)	-1.96	2.46	0	1
성역할에 대한 태도(Z)	-2.89	1.89	0	1
정치적 성향(Z)	-2.70	2.70	0	1

주) (개인) $N=42,991$; (가구) $N=20,000$; (지역) $N=25$.

<표 4> 기술통계표(독립변수)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학력	0	1	0.33	0.47
비참여*	0	1	0.30	0.46
유니보어	0	1	0.49	0.50
준-옴니보어	0	1	0.18	0.39
옴니보어	0	1	0.02	0.15
학력×유니보어	0	1	0.18	0.39
학력×준옴니보어	0	1	0.08	0.27
학력×옴니보어	0	1	0.01	0.11

주) *는 준거집단을 의미함.

(개인) $N=42,991$; (가구) $N=20,000$; (지역) $N=25$.

<표 5> 기술통계표(개인 수준 통제변수)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	6	4.16	1.53
성별	0	1	0.53	0.50
결혼상태	0	1	0.67	0.47
거주기간(Z)	-2.22	4.1	0	1
출생지역	0	1	0.41	0.49
삶의 만족	0	10	7.08	1.20
사회연결망	0	4	1.27	0.90
인지된 차별	1	5	2.95	0.64
관리전문직	0	1	0.06	0.23
비-관리전문직	0	1	0.55	0.50
기타*	0	1	0.39	0.49
고용상태	0	1	0.43	0.50
주관적 지위	1	10	6.20	1.58
기독교	0	1	0.25	0.43
불교	0	1	0.10	0.30
천주교	0	1	0.09	0.29
유교	0	1	0	0.03
기타종교	0	1	0	0.03
무교*	0	1	0.56	0.50

주) *는 준거집단을 의미함.

(개인) $N=42,991$; (가구) $N=20,000$; (지역) $N=25$.

<표 6> 기술통계표(가구 및 지역 수준 통제변수)

변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L2_가구원 수	1	7	2.29	0.95
L2_자녀 유무	0	1	0.28	0.45
L2_주택 유무	0	1	0.55	0.50
L2_총가구소득	1	19	8.82	4.01
L3_GRDP(Z)	-0.82	3.11	0	1
L3_외국인 수 변화	-1.11	21.13	6.59	7.12
L3_문화시설(Z)	-0.51	4.59	0	1

주) 가구 수준 통제변수는 이하 그래프에서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로 취급함.

(개인) $N=42,991$; (가구) $N=20,000$; (지역) $N=25$.

IV. 분석결과

1. 옴니보어의 시민성

옴니보어의 시민성 관련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 신뢰,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자는 세 개의 시민성 지표에 대해서 옴니보어적 레퍼토리는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표 7>에 의하면 옴니보어는 유니보어나 중간층보다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았으며(계수 .071, 유의수준 .05하에서 유의), 이 효과는 학력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즉,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옴니보어 소비자들은 가족, 친구, 이웃을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설 1-a는 지지되었다.

옴니보어는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다양하게 참여하는 개인들이었다(계수 .633,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대졸 미만 학력집단보다 대졸 이상 학력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계수 -.097,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옴니보어와 학력 간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적 옴니보어성은 자원봉사활동으로 대표되는 친사회적 성향과도 유의한 친화성을 보였다. 가설 1-b 또한 지지되었다.

<표 7> 사회 신뢰,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에 대한 문화적 레퍼토리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시민성											
	사회 신뢰				자원봉사활동				시민 참여			
	M1	M2	M3	M4	M1	M2	M3	M4	M1	M2	M3	M4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상수)	-0.012 (0.043)	-0.012 (0.043)	-0.012 (0.043)	-0.012 (0.043)	-0.026 (0.017)	-0.026 (0.017)	-0.026 (0.017)	-0.026 (0.017)	0.006 (0.031)	0.006 (0.031)	0.006 (0.031)	0.006 (0.031)
유니보어	-0.087*** (0.011)	-0.096*** (0.012)	-0.086*** (0.011)	-0.087*** (0.011)	0.064*** (0.012)	0.045*** (0.013)	0.061*** (0.012)	0.064*** (0.012)	0.101*** (0.012)	0.098*** (0.013)	0.103*** (0.012)	0.101*** (0.012)
중간층	-0.007 (0.014)	-0.003 (0.015)	-0.027# (0.017)	-0.007 (0.014)	0.279*** (0.016)	0.288*** (0.016)	0.317*** (0.019)	0.278*** (0.016)	0.252*** (0.015)	0.254*** (0.016)	0.225*** (0.018)	0.252*** (0.015)
옴니보어	0.071* (0.029)	0.076** (0.029)	0.074* (0.029)	0.071# (0.04)	0.633*** (0.033)	0.646*** (0.033)	0.627*** (0.033)	0.675*** (0.046)	0.445*** (0.031)	0.447*** (0.032)	0.449*** (0.032)	0.433*** (0.043)
학력	0.011 (0.01)	-0.006 (0.014)	-0.000 (0.011)		-0.097*** (0.011)	-0.137*** (0.016)	-0.075*** (0.012)	-0.094*** (0.011)	0.146*** (0.011)	0.139*** (0.015)	0.13*** (0.012)	0.145*** (0.011)
학력×U		0.031# (0.018)				0.072*** (0.02)				0.011 (0.019)		
학력×M			0.051* (0.021)				-0.097*** (0.025)				0.069*** (0.023)	
학력×O				-0.001 (0.053)				-0.08 (0.061)				0.024 (0.057)
<i>무선효과</i>												
1 수준 ICC	0.545	0.545	0.546	0.545	0.855	0.855	0.856	0.856	0.683	0.682	0.682	0.683
2 수준 ICC	0.403	0.403	0.403	0.403	0.137	0.137	0.137	0.137	0.293	0.293	0.293	0.293
3 수준 ICC	0.052	0.052	0.052	0.052	0.007	0.007	0.007	0.007	0.025	0.025	0.025	0.025
<i>Deviance</i>	109019.955	109016.86	109014.299	109019.955	118336.171	118323.774	118320.799	118334.461	114391.284	114390.937	114382.57	114391.107

주) 표에 제시된 모든 모형은 1수준, 2수준, 3수준의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 제시된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p < .1$, * $p < .05$, ** $p < .01$, *** $p < .001$ (양측 검정).

<표 8> 이주노동자, 난민, 성 소수자 호오도에 대한 문화적 레퍼토리과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구분	시민성								탈물질주의 가치			
종속변수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난민에 대한 태도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M1	M2	M3	M4	M1	M2	M3	M4	M1	M2	M3	M4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상수)	0.001 (0.026)	0.001 (0.026)	0.001 (0.026)	0.001 (0.026)	0.004 (0.035)	0.004 (0.035)	0.004 (0.035)	0.004 (0.035)	0.004 (0.032)	0.004 (0.032)	0.004 (0.032)	0.004 (0.032)
유니보어	0.052^{***} (0.012)	0.042 ^{***} (0.013)	0.051 ^{***} (0.012)	0.052 ^{***} (0.012)	0.021[#] (0.012)	0.024 [*] (0.013)	0.02 [#] (0.012)	0.022 [#] (0.012)	0.019[#] (0.012)	0.034 ^{**} (0.013)	0.021 [#] (0.012)	0.02 [#] (0.012)
중간층	0.084^{***} (0.016)	0.089 ^{***} (0.016)	0.095 ^{***} (0.018)	0.084 ^{***} (0.016)	0.022 (0.015)	0.021 (0.015)	0.033 [#] (0.017)	0.023 (0.015)	0.045^{**} (0.015)	0.038 [*] (0.015)	0.021 (0.018)	0.046 ^{**} (0.015)
옴니보어	0.116^{***} (0.032)	0.122 ^{***} (0.032)	0.114 ^{***} (0.032)	0.082 [#] (0.044)	0.011 (0.031)	0.009 (0.031)	0.009 (0.031)	-0.03 (0.042)	-0.024 (0.031)	-0.034 (0.031)	-0.02 (0.031)	-0.072 [#] (0.042)
학력	0.008 (0.011)	-0.013 (0.015)	0.015 (0.012)	0.006 (0.011)	-0.004 (0.01)	0.003 (0.015)	0.003 (0.011)	-0.006 (0.01)	0.02[#] (0.01)	0.051 ^{***} (0.015)	0.006 (0.012)	0.018 [#] (0.011)
학력×U		0.037[#] (0.02)				-0.012 (0.019)				-0.054^{**} (0.019)		
학력×M			-0.029 (0.024)				-0.028 (0.022)				0.063^{**} (0.023)	
학력×O				0.066 (0.058)				0.08 (0.055)				0.094[#] (0.055)
<i>무선표과</i>												
1 수준 ICC	0.672	0.672	0.672	0.672	0.578	0.578	0.578	0.578	0.564	0.564	0.564	0.564
2 수준 ICC	0.311	0.311	0.311	0.311	0.389	0.389	0.389	0.389	0.41	0.41	0.41	0.41
3 수준 ICC	0.017	0.017	0.017	0.017	0.033	0.033	0.033	0.033	0.026	0.026	0.026	0.026
<i>Deviance</i>	115718.847	115715.27	115717.347	115717.576	112622.034	112621.621	112620.474	112619.92	113401.625	113393.337	113393.976	113398.763

주) 표에 제시된 모든 모형은 1수준, 2수준, 3수준의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 제시된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p < .1$, * $p < .05$, ** $p < .01$, *** $p < .001$ (양측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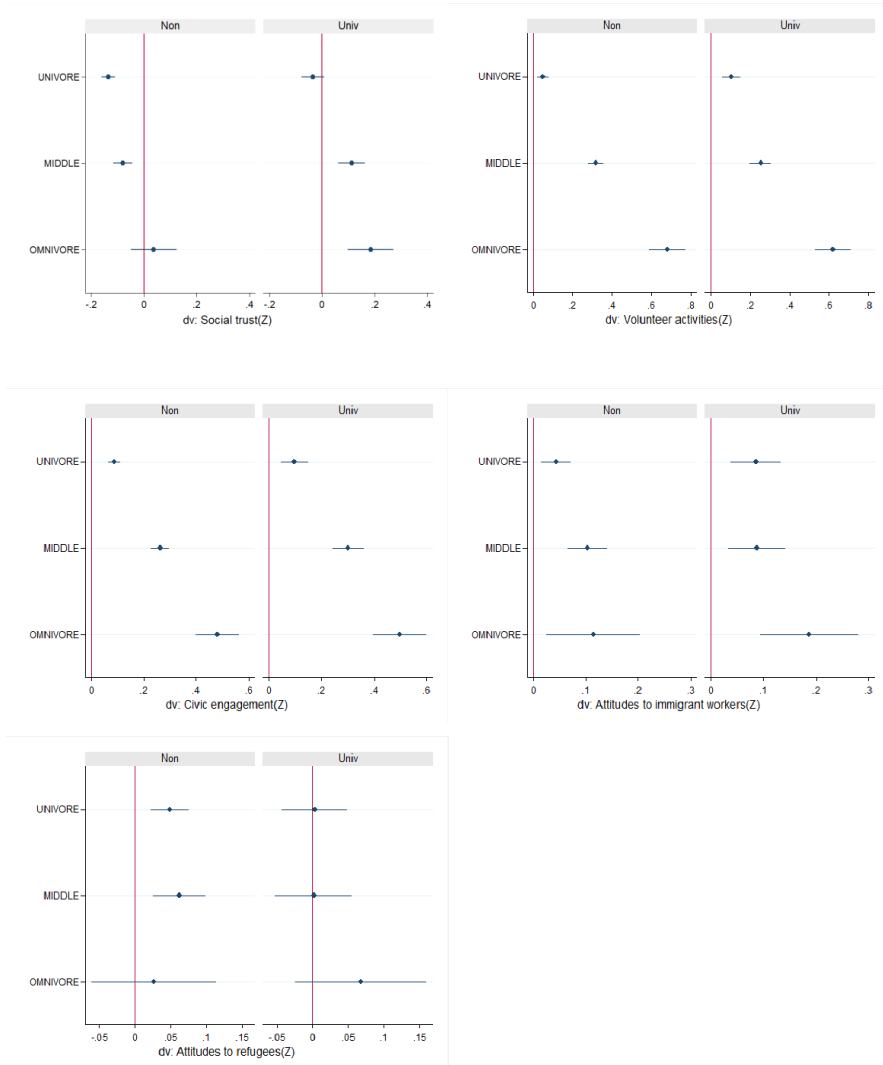
<표 9> 환경의식, 성역할 태도, 정치적 성향에 대한 문화적 레퍼토리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구분	탈물질주의 가치											
종속변수	환경의식				성역할 태도				정치적 성향			
	M1	M2	M3	M4	M1	M2	M3	M4	M1	M2	M3	M4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i>Coef.</i> (<i>SE</i>)
(상수)	-0.007 (0.035)	-0.007 (0.035)	-0.007 (0.035)	-0.007 (0.035)	-0.007 (0.028)	-0.007 (0.028)	-0.007 (0.028)	-0.007 (0.028)	-0.001 (0.021)	-0.001 (0.021)	-0.001 (0.021)	-0.001 (0.021)
유니보어	0.046*** (0.012)	0.064*** (0.013)	0.047*** (0.012)	0.046*** (0.012)	-0.038** (0.012)	-0.026* (0.013)	-0.035** (0.012)	-0.037** (0.012)	0.069*** (0.012)	0.082*** (0.013)	0.069*** (0.012)	0.069*** (0.012)
중간층	0.117*** (0.015)	0.107*** (0.016)	0.097*** (0.018)	0.117*** (0.015)	0.029# (0.016)	0.024 (0.016)	-0.003 (0.018)	0.03# (0.016)	0.101*** (0.031)	0.094*** (0.015)	0.101*** (0.018)	0.101*** (0.015)
옴니보어	0.187*** (0.032)	0.174*** (0.032)	0.19*** (0.032)	0.186*** (0.043)	0.121*** (0.033)	0.114*** (0.033)	0.126*** (0.033)	0.092* (0.045)	0.088** (0.031)	0.079* (0.031)	0.088** (0.031)	0.06 (0.042)
학력	0.028** (0.011)	0.067*** (0.015)	0.017 (0.012)	0.028** (0.011)	0.055*** (0.011)	0.079*** (0.016)	0.037** (0.012)	0.053*** (0.011)	0.113*** (0.01)	0.142*** (0.015)	0.114*** (0.012)	0.112*** (0.011)
학력×U		-0.069*** (0.019)				-0.042* (0.02)				-0.05** (0.019)		
학력×M			0.05* (0.023)				0.082*** (0.024)				-0.001 (0.023)	
학력×O				0.000 (0.058)				0.057 (0.059)				0.055 (0.057)
<i>무선효과</i>												
1수준 ICC	0.683	0.683	0.683	0.683	0.701	0.701	0.701	0.701	0.729	0.729	0.729	0.729
2수준 ICC	0.284	0.284	0.284	0.284	0.279	0.279	0.279	0.279	0.258	0.258	0.258	0.258
3수준 ICC	0.033	0.033	0.033	0.033	0.019	0.019	0.019	0.019	0.012	0.013	0.012	0.012
Deviance	114885.542	114872.95	114881.065	114885.542	117227.559	117223.148	117216.003	117226.648	112809.401	112802.372	112809.399	112808.46

주) 표에 제시된 모든 모형은 1수준, 2수준, 3수준의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 제시된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p < .1$, * $p < .05$, ** $p < .01$, *** $p < .001$ (양측 검정).

옴니보어는 다른 문화적 레퍼토리 유형들보다 시민 참여에도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계수 .445,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마찬가지로 이러한 친화성은 학력에 의해 달라지지 않았다. 옴니보어는 투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치사회적 참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이들을 알 수 있다. 가설 1-c도 지지되었다.



<그림 1> 학력집단별 문화적 레퍼토리와 시민성의 연관성

다음으로 <그림 1>에서 이주노동자, 난민에 대한 호오도에 대해서 각 문화적 레퍼토리의 회귀계수를 비교해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옴니보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용을 보여주는 반면, 난민에 대한 호오도 변수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8>을 보면 옴니보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 면에서 다른 개인들보다 관용적이었다(계수 0.116,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따라서 가설 1-d는 지지되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옴니보어와 학력 간의 상호작용항 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옴니보어적 레퍼토리에 내포된 문화적 관용이 학력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관용과 친화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옴니보어를 비롯한 문화소비 유형의 설명력은 크게 떨어진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니보어 집단을 제외하고(계수 0.021,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 옴니보어 소비자와 중간층 소비자 집단은 난민에 대한 호오도 차원에서 문화적 비참여 집단과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난민에 대한 태도는 학력 또는 학력과 문화소비 유형의 상호작용항에 의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 1-e는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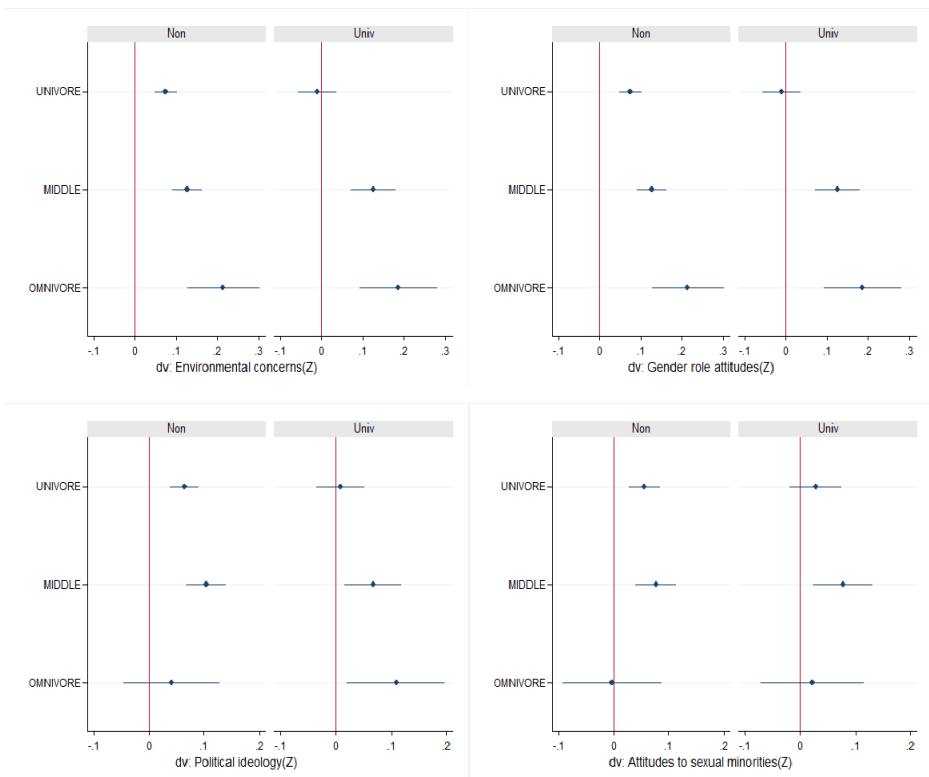
정리하면 옴니보어의 시민성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특히 사회 신뢰, 자원봉사활동, 시민 참여와 같이 집단적 차원의 사회자본에 결부된 지표들에서 옴니보어가 다른 문화소비 유형 집단에 비해 보여주는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옴니보어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관용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 난민은 이들의 관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출신국적, 인종 또는 민족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은 똑같이 원주민(natives)과 구분되는 이방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옴니보어의 정치적 관용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2. 옴니보어와 탈물질주의 가치

다음으로 옴니보어의 탈물질주의 가치는 <그림 2>에 시각화되어 있다. 그림에 의하면 문화적 레퍼토리의 관용성이 증가할수록 더 환경의식이 높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보적 정치 성향은 대졸 학력 집단별로 그 유의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성 소수자 호오도에 대해서는 문화적 옴니보어성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 9>를 살펴보면, 우선 옴니보어의 환경의식은 다른 문화 소비자 유형들보다 높았다(계수 .187,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또한 개인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라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환경의식 또한 높을 가능성이

크다(계수 .028,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 그러나 옴니보어적 레퍼토리가 환경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 집단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옴니보어는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의 녹색친화적 가치 지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문화적 레퍼토리이며, 가설 2-a는 지지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성역할 태도면에 있어서도 옴니보어는 가장 진보적인 모습이다(계수 .121,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또한 학력이 대졸 미만인 개인에 비하여 그보다 높은 학력을 지닌 개인이 성역할 태도면에서 더 평등주의적인 경향이 있다(.055,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그러나 환경의식에 대한 옴니보어성의 효과와 마찬가지로, 성역할 태도에 대한 옴니보어성의 효과 또한 학력 집단에 의해 분해되지 않았다. 옴니보어와 학력의 상호작용항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가설 2-b도 지지되었다.



<그림 2> 학력집단별 문화적 레퍼토리와 탈물질주의 가치의 연관성

정치적 성향 차원에서 옴니보어는 문화적 비참여 집단보다 유의하게 진보적이기는 하지만(계수 .088,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 이들이 가장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이는 옴니보어보다 중간층 소비자 여부가 더 정치적 진보 성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계수 .101,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이에 따라 가설 2-c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될 수 있다. 한편, 대졸 이상 학력은 문화적 취향과는 별개로 학력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예측하였다(계수 .113, 유의수준 .001하에서 유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옴니보어의 관용은 뚜렷하지 않다(<표 8> 참조). 옴니보어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심지어 음(-)의 방향인 계수를 보여주는 한편(계수 -0.024), 오히려 유니보어(계수 0.019,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와 중간층(계수 0.045, 유의수준 .01하에서 유의)이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단, 상호작용항 계수에 의하면 학력이 높은 옴니보어가 상대적으로 더 성소수자에게 관용적인 경향이 있다(계수 0.094,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 결과적으로 가설 2-d는 기각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옴니보어는 다른 이들보다 환경의식이 높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크게 찬성하며, 정치적으로도 일정 부분 진보적이라는 점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사회적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정치적 성향 면에서 옴니보어가 다른 누구보다도 크게 진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옴니보어가 서구 사회에서 관찰된 것만큼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옴니보어일 가능성이 높지만(Park & Park 2021), 반대로 모든 옴니보어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옴니보어적 레퍼토리는 성 소수자 집단에 대한 관용과도 유의하게 연계되지 않았다. 옴니보어의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중간층이나 유니보어 집단보다도 부정적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 옴니보어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민성과 탈물질주의 가치 지향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옴니보어는 다른 문화 소비자들보다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고 자원봉사활동과 시민참여 활동에 더 적극적이며, 이주노동자에게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민성이 높은 개인들이다. 또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환경보호 문제를 위한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제도적 지

원에 찬성하고, 정치적 성향 면에서도 어느 정도 진보적이라는 점에서 탈물질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옴니보어가 보여주는 사회정치적 관용은 성 소수자와 난민 집단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3. 성 소수자 및 난민에 대한 문화적 관용의 분화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 소수자와 난민 집단에 대하여 옴니보어성의 유의하고 독립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옴니보어성의 효과가 어떤 하위특성에 의해 분화되는지를 개인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종교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 기독교 집단은 성 소수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는 난민 집단은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함께 이들을 국내 여성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어 있다(Kim 2021). 따라서 학력이 아닌 다른 변수와 옴니보어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다면, 전체 옴니보어 중 해당 하위집단(가령, 여성이나 기독교 신자인 옴니보어)에서 문화적 옴니보어성과 난민 또는 성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호오도의 연관성이 높거나 낮은 경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추가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첫째로, 난민에 대해서는 개인의 종교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난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계수 -0.022 , 유의수준 $.01$ 하에서 유의). 하지만 옴니보어성과 각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살펴보면 여성과 옴니보어성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천주교인 옴니보어가 종교가 없는(무교) 옴니보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민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계수 0.197 , 유의수준 $.05$ 하에서 유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는 옴니보어의 난민에 대한 호오도를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았다.

둘째로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결정요인들을 살펴보면, 불교신자(계수 -0.031 , 유의수준 $.1$ 하에서 유의)와 천주교신자(계수 -0.049 , 유의수준 $.05$ 하에서 유의)는 종교가 없는 개인에 비해 성 소수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상과 달리, 기독교 신자는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 준거집단인 무교 집단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성 소수자에게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유교를 믿는 사람들(-0.412 , 유의수준 $.05$ 하에서 유의)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옴니보어성과의 상호작용항 계수들을 살펴보면 천주교 신자인 옴니보어는 종교가 없는 옴니보어보

다 성 소수자에게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계수 0.16, 유의수준 .1하에서 유의) 개신교 신자인 옴니보어는 성 소수자에게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계수 -0.137, 유의수준 .05하에서 유의). 다른 상호작용항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0> 난민과 성 소수자 호오도에 대한 옴니보어와 종교의 상호작용 효과

	난민에 대한 태도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	
	<i>Coeff.</i>	(<i>SE</i>)	<i>Coeff.</i>	(<i>SE</i>)	<i>Coeff.</i>	(<i>SE</i>)	<i>Coeff.</i>	(<i>SE</i>)
(상수)	0.004	(0.035)			0.004	(0.032)		
학력	-0.004	(0.010)			0.020 [#]	(0.010)		
유니보어	0.021 [#]	(0.015)			0.019 [#]	(0.012)		
중간층	0.022	(0.015)			0.045 ^{**}	(0.015)		
옴니보어	0.011	(0.031)			-0.024	(0.031)		
기독교	0.011	(0.013)	-0.015	(0.064)	-0.019	(0.013)	-0.137 [*]	(0.065)
불교	-0.017	(0.018)	-0.084	(0.093)	-0.031 [#]	(0.019)	0.095	(0.093)
천주교	-0.007	(0.020)	0.197 [*]	(0.089)	-0.049 [*]	(0.020)	0.160 [#]	(0.090)
유교	0.056	(0.198)			-0.412 [*]	(0.201)		
기타 종교	0.425	(0.221)			0.063	(0.225)		
연령	0.028 ^{***}	(0.006)	-0.002	(0.019)	-0.003	(0.006)	-0.027	(0.019)
여성	-0.022 ^{**}	(0.008)	-0.075	(0.054)	-0.009	(0.008)	0.003	(0.054)
사회적 지위	0.004	(0.003)	0.026	(0.019)	0.025 ^{***}	(0.003)	0.006	(0.019)
무선 효과								
1수준 ICC	0.578				0.564			
2수준 ICC	0.389				0.410			
3수준 ICC	0.033				0.026			
Deviance	112622.034				113401.625			

주) 상호작용 효과는 옴니보어와 해당 변수의 상호작용항 계수임.

표에 제시된 모든 모형은 1수준, 2수준, 3수준의 나머지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

제시된 수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p < .1$, * $p < .05$, ** $p < .01$, *** $p < .001$ (양측 검정).

정리하면, 같은 옴니보어 중에서도 천주교를 믿는 개인들은 다른 옴니보어보다도 난민과 성 소수자에게 관용적이다. 기독교 신자인 옴니보어는 종교가 없는 옴니보어에 비해 성 소수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옴니보어 내부에서 연령, 성별, 주관적 지위 같은 변수보다도 특히 종교에 따른 하위집단에 따라 문화적 옴니보어성과 난민 및 성 소수자에 대한 호오도의 연관성이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민과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옴니보어가 나타내는 태도가 이처럼 옴니보어 내부에서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옴니보어 자체가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 지니는 설명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문화적 레퍼토리가 개인의 다양한 사회정치적 태도와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문화적 취향과 소비의 패턴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꼬리표가 아니라, 개인에게 내재된 광범위한 가치 지향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한 데 있다. 주요 결론 중 하나는 옴니보어성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문화적 레퍼토리가 일련의 공적 태도 및 행동과 친화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개인의 시민성과 탈물질주의 가치를 형태 짓는 데 있어서 문화적 레퍼토리는 학력과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옴니보어성, 즉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옹호하는 문화적 선택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높은 개방성과 연관되었으며, 더 친사회적이고 타인과 공동체의 이익, 환경 보호에도 높은 관심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옴니보어들은 다른 개인들보다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회 내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더 평등주의적이었다.

그러나 특이사항은 난민 집단과 성 소수자 집단이 이들 옴니보어들의 정치적 관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 옴니보어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만 난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 이유를 본 연구의 분석결과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한국인 특유의 코즈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이해가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 시점인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불거진 난민 혐오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노동자와 다르게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고용 자격을 얻으려 한다는 데에서 일정 부분 기인했다. 서구 사회에서와 다르게 한국인의 세계 시민성에 대한 이해는 민족국가적 정체성과 분리되지 않으며, 국적을 초월해 전 세계의 동료 시민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용된 도덕적 의무와 윤리적 감수성을 뜻하는 보편적인 세계 시민성의 의미와 상충되는 의미를 가진다(Schattle 2015). 한국인에게 코즈모폴리터니즘은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구성요소로 가지기 쉽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똑같이 피부색이나 민족성 면에서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태도가 차별적인 것은 한국인의 시민성이 서구 사회의 그것처럼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해와 안전을 고려하는 사고방식에 구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옴니보어의 정치적 관용이 제한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성 소수자는 이들이 확고한 성역할과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온 사회 규범의 근간에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적대시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다. 이성애를 토대로 이루어진 가족을 사회의 핵심 단위로 보는 가부장제 질서가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타자이자 소수자인 성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옴니보어성이 지니는 친화성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경험분석 결과는 종교에 따른 옴니보어 집단 내부의 분화가 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옴니보어 중에서도 난민과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천주교 신자인 옴니보어는 다른 옴니보어보다도 유의하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기독교 신자인 옴니보어는 성 소수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성 소수자에 대한 호오도에 대해서는 종교 자체의 독립적인 영향도 두드러졌다. 무교 집단에 비해 불교, 천주교, 특히 유교 신자는 성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국내의 인식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서구 사회에는 없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서 한국의 옴니보어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추가적으로 거시구조적 차원에서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의 절충적 혼합과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의 급격한 확산이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관용을 제한하는

또 다른 배경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 탈물질주의 가치의 약화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나타난 정부 주도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가져온 사회구조적 변동의 결과다. 또한, 권위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독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 특유의 정치 지형은 탈물질주의 가치와 진보적 성향의 연계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옴니보어 집단 내부에서 정치적 성향의 변동성을 증가시켰을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옴니보어는 가장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집단이 아니며 난민과 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관용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관찰되어 온 옴니보어와 다르다. 그리고 옴니보어 내부에서 정치 성향 및 종교의 분화, 한국 사회 특유의 민족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관점과 혼합되어 있는 코즈모폴리타니즘, 그리고 성 소수자에게 유독 적대적인 한국 사회 특유의 가부장제 규범은 한국 옴니보어의 정치적 관용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연구는 2018년 한 시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기술된,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을 지향하는 개인의 문화적 선택과 사회정치적 태도의 연관성은 추후 여러 시점의 자료를 분석하는 종적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문화적 레퍼토리와 그것이 배태된 가치 체계와의 구조적 연관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구조적 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태도가 문화적 옴니보어성과 어떻게 공변하는지는 이 연구를 통해 검증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는 전국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옴니보어의 사회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있어 개인의 성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옴니보어는 다른 이들보다 다양한 문화적 대상물과 새로운 경험에 더 끌리며(Roose et al. 2012), 더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보이거나(Chan 2019; Rogers & Jost 2022), 또는 불안정하고 지위 추구적인 성향을 가지는 이들(Shin & Youn 2022)로 설명된 바 있다. 이는 문화적 선택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성향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자료의 한계로 성역할 태도 변수의 측정에 있어서 보다 분명하게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옴니보어가 젠더

문제에 더 관용적이라고 결론내리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통제변수에 응답자의 성별과 성평등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공정성 또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속 연구는 성역할 태도와 성평등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변수를 활용하여 옴니보어적 관용과의 연계성을 엄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옴니보어성을 개념화 및 측정하는 데 있어서 취향이 아닌 소비, 즉 문화적 실천에 관한 관측값을 사용할 때, 개인의 문화적 레퍼토리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조건 지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비교적 다양한 8가지의 문화소비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예를 들면 공연장,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이 서울 거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옴니보어성의 측정이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충분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화적 대상물에 대한 개인의 비소비를 전적으로 개인의 선호 또는 불호의 결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는 옴니보어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방법론적으로 개인의 문화적 레퍼토리 유형을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있지만 개인의 문화소비와 시민성 및 탈물질주의 가치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연관성 또는 친화성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문화소비를 그의 가치관이나 행동패턴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Chan 2019; DiMaggio 1996; Purhonen & Heikkilä 2016).

개인의 문화적 선택은 그들이 처한 사회구조적 불평등 속에서도 일정한 가동범위와 자율성을 가지고 개인마다 다르게 조합되고 구성된다. 그 변동성은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도, 개인들에게 내재된 더 광범위한 가치 체계를 통해 일정 부분 설명될 수 있다. 교육수준, 지위, 소득수준 면에서 다른 사회구성원보다 유리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중에서 옴니보어가 되는 것은 코즈모폴리탄적이고 관용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더 외향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들이다(Chan 2019: 802).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서술이 서구가 아닌 다른 국가적 맥락에서도 완전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보여준다. 개인의 문화적 선택과 사회정치적 태도, 가치, 행동패턴 사이의 보다 미묘한 친화성과 그것을 제한 또는 촉진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택·박재홍. 2011. “한국 사회운동의 변화와 탈물질주의.” 《OUGHTOPIA》 26(3): 5-38.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김두이·김상훈. 2019. “육아기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육아부담이 문화예술관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 효과.” 《문화정책논총》 33(1): 5-33.
- 김은미·서새롬. 2011. “한국인의 문화 소비의 양과 폭: 옴니보어론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55(5): 205-233.
- 김지범. 2022.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이후의 한국의 사회동향: 2003-2021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연구》 23(1): 1-32.
- 김창환·변수용. 2021. 《교육 프리미엄: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노동시장 가치는 하락했는가?》 피와이메이트.
- 김희정. 2017. “한국 거주 이주민 출신국에 따른 고정관념의 탐색.” 《미디어, 젠더 & 문화》 32(2): 125-173.
- 남은영·최유정. 2008.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1(3): 57-84.
- 박근영. 2014. “영화관람 행위에 있어 옴니보어(Omnivore)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적 고찰.” 《문화와 사회》 16: 143-185.
- 박재홍·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코호트분석.” 《한국사회학》 46(4): 69-95.
- 배영. 2013. “여가 활동에서 문화 콘텐츠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 14(1): 73-100.
- 부르디외(Bourdieu, P.). [1984]2005.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새물결.
- 서울특별시. 2019.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2018년 서울서베이 기준)』. 서울특별시.
- 신경희. 2017. “종교적 정체성에 따른 여성 예비교사들의 성소수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3(2): 245-279.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양해만·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1): 75-100.

- 원숙연. 2019. 《다문화 사회의 다층성: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윤인진·김상운. 2005. “여가활동의 사회집단별 차이와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13(2): 162-202.
- 이명진. 2021. 《한국인의 사회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 이명진·최섯별·최유정.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11(1): 63-85.
- 이상수·이명진. 2014. “문화 선호와 참여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8(5): 25-57.
- 장미혜. 2001. “문화자본과 소비양식의 차이.” 《한국사회학》 35(3): 51-81.
- 장세길. 2016. “옴니보어 문화향유의 특성과 영향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30(4): 283-301.
- 전범수·이상길. 2004. “영화 장르의 사회적 소비 구조.” 《한국방송학보》 18(3): 554-597.
- 정태석. 2009.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유럽과 한국의 유사성과 차이.” 《경제와사회》 72: 125-147.
- 조돈문. 2005. “한국사회의 계급과 문화.” 《한국사회학》 39(2): 1-33.
- 조동기.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사회학》 33(3): 53-73.
- 조아현. 2023. “한국 사회의 옴니보어성과 사회적 지위.” 《사회과학연구》 62(1): 182-212.
- 최섯별·이명진. 2012. “음악장르, 여가활동, TV프로그램 선호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문화 지형도” 《한국사회학》 46(2): 34-60.
- 최성수·이수빈. 2018. “한국에서 교육 기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져 왔는가?: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최종학력 격차의 출생 코호트 추세.” 《한국사회학》 52(4): 77-113.
- 통계청. 2022.12.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검색일: 2023.01.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3S&conn_path=I2
- Alderson, A.S., A. Junisbai, and I. Heacock. 2007. “Social Status and Cultural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Poetics* 35(2-3): 191-212.
- Bail, C.A. 2008. “The Configuration of Symbolic Boundaries against Immigrants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1): 37-59.
- Boli, J. and G.M. Thomas. 1997. “World Culture in the World Polity: A Century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 171-190.
- Brincks, A.M., C.K. Enders, M.M. Llabre, R.J. Bulotsky-Shearer, G. Prado, and D.J.

- Feaster. 2017. “Centering Predictor Variables in Three-Level Contextual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2(2): 149-163.
- Bryson, B. 1996. “Anything But Heavy Metal: Symbolic Exclusion and Musical Dislik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5): 884-899.
- Bryson, B. 1997. “What About the Univores? Musical Dislikes and Group-Based Identity Construction among Americans with Low Levels of Education.” *Poetics* 25: 141-156.
- Byun, S.-Y. and H. Park. 2017. “When Different Types of Education Matter: Effective Maintained In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in Kore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1(1): 94-113.
- Chan, T.W. 2019. “Understanding Cultural Omnivores: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0(3): 784-806.
- Chang, K.S. 2014.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Obfuscated Family Crisis in East Asia.” in Ochiai, E. and L.A. Hosoya (Eds.). *Transformation of the Intimate and the Public in Asian Modernity*. (pp. 37-62). Brill: Leiden.
- Chang, H.I. 2019.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2): 190-210.
- Chung, I. and H. Park. 2019.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83: 102307.
- Cho, A. and H.H.-s. Kim. 2023. “Are ‘Cultural Omnivores’ More Accepting of Outgroup Members? Survey Findings from a New Immigrant Dest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6: 101833.
- Dalton, R.J. 2008.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56: 76-98.
- DiMaggio, P. 1996. “Are Art-museum Visitors Different from Other Peopl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dance and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in the United States.” *Poetics* 24: 161-180.
- DiMaggio, P. and J. Mohr. 1985. “Cultural Capital, Educational Attainment, and Marital Sele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6): 1231-1261.
- Delhey, J., K. Newton, and C. Welzel. 2011. “How General Is Trust in ‘Most People’? Solving the Radius of Trus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86-807.
- Edgell, P. and E. Tranby. 2010. “Shared Visions? Diversity and Cultural Membership in American Life.” *Social Problems* 57(2): 175-204.

- Erickson, B.H. 1996. "Culture, Class, and Connec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1): 217-251.
- Fishman, R.M. and O. Lizardo. 2013. "How Macro-historical Change Shapes Cultural Taste: Legacies of Democratization in Spain and Portug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8(2): 213-239.
- Geys, B. and Z. Murdoch. 2010. "Measuring the 'Bridging' versus 'Bonding' Nature of Social Networks: A Proposal for Integrating Existing Measures." *Sociology* 44(3): 523-540.
- Hainmueller, J. and M.J. Hiscox. 2007. "Educated Preferences: Explaining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Organization* 61(2): 399-442.
- Hainmueller, J. and D.J. Hopkins. 2014.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 225-249.
- Harrits, G.S., A. Prieur, L. Rosenlund, and J. Skjott-Larsen. 2009. "Class and Politics in Denmark: Are Both Old and New Politics Structured by Clas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3(1): 1-27.
- Hox, J.J., M. Moerbeek, and R. Schoot. 2018.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3rd edition). Routledge.
- Inglehart, R.F. 2008.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from 1970 to 2006." *West European Politics* 31(1-2): 130-146.
- Inglehart, R.F. and C.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rness, V. and S. Friedman. 2017. "'I'm Not a Snob, but...': Class Boundaries and the Downplaying of Difference." *Poetics* 61: 14-25.
- Karademir Hazır, I. and A. Warde. 2018. "The Cultural Omnivore Thesis: Methodological Aspects of the Debate." In L. Hanquinet and M. Savage (Eds.). *Routledge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Art and Culture*. (pp. 77-89). London, England: Routledge.
- Katz-Gerro, T., S. Raz, and M. Yaish. 2009. "How Do Class, Status, Ethnicity, and Religiosity Shape Cultural Omnivorousness in Israel?"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3: 1-17.
- Kim, H. H.-s. 2018. "Particularized Trust, Generalized Trust, and Immigrant Self-Rated Health: Cross-National Analysis of World Values Survey." *Public Health* 158: 93-101.
- Kim, H. H.-s. 2023. "Social Conflict and Outgroup Sentiment in South Korea: Evidence from the Yemeni Anti-Refugee Campaig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3

(2): 283-316.

- Kim, H.M. 2021. *Facing Refugees: New Questions on Korean Democracy*. IPUS Horizon No.5.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 Lagaert, S. and H. Roose. 2018. “Gender and Highbrow Cultural Participation in Europe: The Effect of Societal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1-25.
- Lamont, M. 1992. *Money, Morals, and Manners: the Culture of the French and American Upper-Middle Cla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mont, M. and V. Molnár. 2002. “The Study of Boundaries in the Social Scien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167-195.
- Lemel, Y. and T. Katz-Gerro. 2015. “The Stratification of Leisure: Variation in the Salience of Socioeconomic Dimensions in Shaping Leisure Participation in Two Consumer Societies.” *Society and Leisure* 38(3): 399-422.
- Leroux, K. and A. Bernadka. 2014. “Impact of the Arts on Individual Contributions to US Civil Society.” *Journal of Civil Society* 10(2): 144-164.
- Lim, C., D.-K. Im, and S. Lee. 2021. “Revisiting the ‘Trust Radius’ Question: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Trust Radius in South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3: 149-171.
- Lindblom, T. 2022. “Growing Openness or Creeping Intolerance? Cultural Taste Orientations and Tolerant Social Attitudes in Finland, 2007-2018.” *Poetics* 93(B): 101663. <https://doi.org/10.1016/j.poetic.2022.101663>.
- Lizardo, O. 2005. “Can Cultural Capital Theory Be Reconsidered in the Light of World Polity Institutionalism? Evidence from Spain.” *Poetics* 33(2): 81-110.
- McCoach, D.B. 2018. “Multilevel Modeling.” in G.R. Hancock, L.M. Stapleton, and R.O. Mueller. (Eds.). *The Reviewer’s Guide to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Sciences*. Routledge. pp.292-312.
- Meuleman, R. and M. Savage. 2013. “A Field Analysis of Cosmopolitan Taste: Lessons from the Netherlands.” *Cultural Sociology* 7(2): 230-256.
- Okada, S. 2017. “Structure of Cultural Rejec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60(2): 355-377.
- Park, J. and J. Park. 2022. “Cultural Omnivorousness in South Korea: The Eff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Religion and Cultural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24(3): 57-70.
- Peterson, R. 1992. “Understanding Audience Segmentation: From Elite and Mass to Omnivore and Univore.” *Poetics* 21: 243-258.

- Peterson, R. and R.M. Kern.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5): 900-907.
- Peterson, R.A. and A. Simkus. 1992.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in Lamont, M. and M. Fournier (Eds.). *Cultivating Differences: Symbolic Boundaries and the Making of Inequality*. (pp. 152-186).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urhonen, S. and R. Heikkilä. 2016. "Food, Music and Politics: The Interweaving of Culinary Taste Patterns, 'Highbrow' Musical Taste and Conservative Attitudes in Finland." *Social Science Information* 56(1): 74-97.
- Putnam, R.D.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174.
- Raudenbush, S.W. and R.T. Congdon. 2021. *HLM 8: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Chapel Hill, NC: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Rogers, N. and Jost, J.T. 2022. "Liberals as Cultural Omnivores." *Political Ideology and Consumption* 7(3): 255-265.
- Roose, H., van K. Eijck, and J. Lievens. 2012. "Culture of Distinction or Culture of Openness? Using a Social Space Approach to Analyze the Social Structuring of Lifestyles." *Poetics* 40: 491-513.
- Schattle, H. 2015. "Global Citizenship as a National Project: The Evolution of Segye Shimin in South Korean Public Discourse." *Citizenship Studies* 19(1): 53-68.
- Shin, H. and N. Youn. 2020. "How Insecure Narcissists Become Cultural Omnivores: Consuming Highbrow Culture for Status Seeking and Lowbrow Culture for Integrity Signaling." *Psychology of Aesthetic, Creativity, and the Arts*. Advance Online Publication.
<http://dx.doi.org/10.1037/aca0000303>
- Skjøtt-Larsen, J. 2012. "Cultural and Moral Class Boundaries in a Nordic Context." *European Societies* 14(5): 660-683.
- StataCorp. 2021. *Stata Statistical Software: Release 17*. College Station, TX: StataCorp LP.
- Van Eijck, K. and J. Lievens. 2008. "Cultural Omnivorousness as a Combination of Highbrow, Pop, and Folk Elements: The Relation between Taste Patterns and Attitudes Concerning Social Integration." *Poetics* 36: 217-242.
- Warde, A., D. Wright, and M. Gayo-Cal. 2007. "Understanding Cultural Omnivorousness: Or, the Myth of the Cultural Omnivore." *Cultural Sociology* 1(2): 143-164.

Woodward, I., Z. Skrbis, and C. Bean. 2008. “Attitudes towards Globalization and Cosmopolitanism: Cultural Diversity, Personal Consumption and the National Econom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9(2): 207-226.

<접수 2023.06.22; 수정 2023.07.24; 게재확정 2023.07.26>

‘Incomplete Tolerance’: Omnivores’ Citizenship and Post-materialism in South Korea

Ahhyun Ch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s cultural consumption patterns, measured by omnivorousness, are linked to social/political attitudes and related behaviors. In Korean society, cultural omnivorousness is associated with citizenship and post-materialism value orientation. More specifically, Omnivores are more trusting to their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than other individuals. They also tend to participate broader volunteer and civil activities, and show greater acceptance towards immigrant workers. Furthermore, they hold post-materialistic values, which include more progressive gender role attitudes and concerns for the environment. However, the study also found that Korean omnivores do not necessarily display more tolerant attitudes towards refugees and sexual minorities, nor do they align with the most politically liberal group within society. Several factors contribute to the incomplete political tolerance of omnivores, including the differentiation of political ideology and religion within the omnivore group, the intermingling of cosmopolitan outlook with nationalism and collectivism, and patriarchal societal norms that exclude sexual minorities. The study concludes that cultural choices are not solely determined by socioeconomic status but also reflect a broader internalized value system among individuals.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specific societal context when examining the connections between cultural repertoires and social/political attitudes.

Key words: omnivores, cultural consumption, citizenship, post-materialism